



## [우유급식] 美, 학교급식에 향료첨가 저지방우유 유지키로

- 농무부,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개정안 마련



미국 농무부(USDA)가 향후 2년간 학교급식에 향료첨가 저지방우유를 계속해서 공급키로 결정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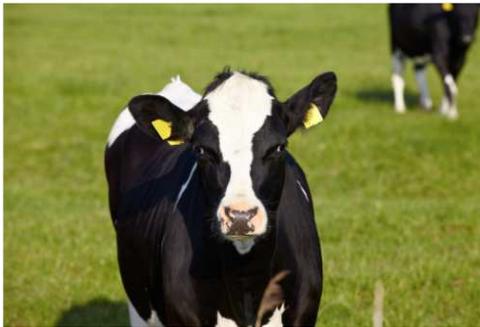
최근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(School Nutrition standards)을 개정하고, 앞으로 2년간 학교급식에 향료첨가 저지방우유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, 학교에서는 무지방 및 저지방 우유뿐만 아니라 향료가 첨가된 저지방(1%) 우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밖에도 매주 아침과 점심 급식에 통곡물 비중을 80%로 늘리고 내년까지 나트륨 허용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2023/24학년도부터는 10%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개정되었다.

이에, 농무부 장관이 영양이 풍부한 학교급식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낙농업계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. < 출처 : wishtv.com, 2월 5일자 >

## [지속가능] 캐나다 낙농업계,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추진

-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 활용,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계획



캐나다낙농가협회(DFO)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.

캐나다 낙농업계는 지난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목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22% 줄이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먼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(net zero)에 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.

이에 따라,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목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및 물 사용, 폐기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참고로 이번 목표는 캐나다 정부와 파리기후협약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마련되었으며, 앞서 지난해 해당 협회는 GDP(글로벌낙농플랫폼)이 주관하는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지원한 바 있다.

< 출처 : thecattlesite.com, 2월 4일자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